

HEADLINE NEWS

「자원봉사 티켓 제도」 도입 (동경도: 치요다區)

일본 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區)는 구(區)내 기업과 협력하여 복지시설과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치요다 자원봉사 티켓 제도」를 도입했다. 주말에 사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시간만큼 근무처의 기업이 사회봉사협의회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제도이다. 사람과 돈 양면에서 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사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일정 시간 이상 참가할 때마다 자원봉사 티켓 1매를 교부하며, 근무처 기업은 티켓 1매당 1,000엔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복지시설과 자원봉사단체에 배분된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708c3b0804108.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공장 이전지 재개발 활발 (미국)
- ② 새로운 도시 브랜드 'Toronto Unlimited' 만들기 (토론토)
- ③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활용해 실제적인 비상사태 대피 훈련 실시 (워싱턴 D.C.)

도시환경

- ④ 중심상업지구 재활성화를 위한 거리 청소 캠페인 실시 (조지아주)
- ⑤ '청소과'를 '도시미화과'로 직제 변경하여 다양한 사업 전개 (로스앤젤레스)

도시교통

- ⑥ 지하철 이용 관련 규제사항 명문화 (뉴욕)
- ⑦ 모든 도로 시스템에 혼잡통행료 적용 제안 (영국)
- ⑧ 운전 중 핸드프리 휴대폰 사용과 교통사고의 관계 분석 결과 발표 (호주: 퍼스)
- ⑨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협약하는 교통·환경개선 프로그램 추진 (토론토)
- ⑩ 개발업자 주도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 추진 (워싱턴 D.C.: 페어팩스 카운티)

사회복지문화

- ⑪ 新도심 합동청사를 각종 촬영유치 특구로 제안 (사이타마縣)

행정

- ⑫ 아시아 기업유치를 위한 특구특례조치 제안 (가와사키市)
- ⑬ 대중교통시스템을 브랜드화해 재정 수입 증진 도모 (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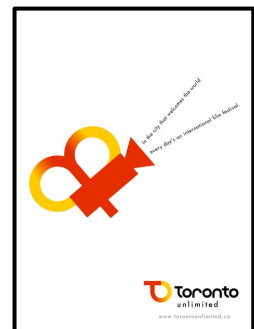
① 공장 이전적지 재개발 활발 (미국)

미국 대도시 전역에서 공장 이전적지가 재개발 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도시 주변부 지가 상승과 대규모 개발용지 부족 때문에 도심 인근에 있는 공장 이전적지의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장 이전적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오염토지 정화비용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7년간 미국 전역에서 1,187개 공장 이전적지가 재개발되었으며 면적은 44km²에 달한다.

(online.wsj.com/article_email/article_print/0,,SB111758355268247649-lhjfoNmlad4npuoZYGGbqaCm4,00.html)

② 새로운 도시 브랜드 ‘Toronto Unlimited’ 만들기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市 시민과 방문객은 토론토市를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상상력 가득한 도시이며, 경제적 기회를 무한히 제공하는 도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토론토市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토론토市를 여행과 비즈니스 투자활동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역동적이며 새로운



도시 브랜드인 ‘Toronto Unlimited’를 만들어 2005년 6월 23일 공표했다. 13개월에 걸쳐 예산 4백만 달러가 투입된 토론토市 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500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230명과 심층면담이나 회의를 했고, 캐나다·미국·영국을 포함한 14개국 전문가 집단회의도 열었다. Toronto의 약자인 T.O. 표시로 시작되는 이 로고는 음악, 음식, 영화, 축제, 예술을 의미하는 5개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토론토는 세계인들에게 “상상력이 가득한 토론토, 기회가 무한한 토론토”라는 약속 이행 징표로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wx.toronto.ca/inter/it/newsrel.nsf)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활용해 실제적인 비상사태 대피 훈련 실시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당국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실제적인 비상사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 도심 부에서 열리는 행사 직후 실시될 이 훈련은, 주로 대피 경로의 적절성과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흐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통상황 모니터링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활용해 추후 각종 분석을 할 예정이다. 'Operation Fast Forward'라고 불리는 이번 훈련은 대규모 테러에 대비하는 것으로 교통부, 경찰, 대중교통 운영기관 등 다양한 관련기관의 공조아래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약 45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소와 달리 대피경로에 더 많은 신호시간을 할당하고, 보행자 신호를 최고 3분까지 연장하는 등 유사시 필요한 체제로 교통신호가 운영될 계획이다.

(www.wtopnews.com/index.php?nid=251&sid=538092)

④ 중심상업지구 재활성화를 위한 거리 청소 캠페인 실시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지역인 귀넷 카운티는 최근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3개 중심상업지구의 재활성화를 위해 '120일 거리 청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열악한 보행환경과 조경상태, 무단투기 쓰레기가 이 지역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시작됐다. 카운티 정부와 비영리단체인 '깨끗한 귀넷 만들기 모임'은 캠페인과 함께 전담 경찰관 10명을 배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거리순찰과 조경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Atlanta Journal-Constitution, 2005. 6. 21, "Operation fixing broken windows: Flight the blight")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청소과' 를 '도시미화과' 로 직제 변경하여 다양한 사업 전개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공무원국은 최근 산하조직인 '청소과' 명칭을 '도시미화과'로 바꾸었다. 일상적인 청소과 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에 더욱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담당부서 명칭을 바꾸었다. 1987년부터 청소과가 수행하던 도로청소,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 거리낙서 제거와 같은 단순 반복기능은, 2005년 6월 이후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전략'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앞으로 도시미화과는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아름다운 로스앤젤레스市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www.lacity.org/bpw/press/bpwpress)

6 지하철 이용 관련 규제사항 명문화 (뉴욕)

미국 뉴욕市 지하철 당국은 최근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명문화해서, 이를 법규 위반의 단속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주요 규제사항은 열차 차량간 이동, 좌석 위에 발을 올려놓는 행위, 회전식 개찰구를 뛰어넘는 행위 등이다. 열차 차량간 이동 규제는 차량사이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117명의 부상자가 차량 연결부에서 발생했다. 또한 회전식 개찰구를 뛰어넘는 행위의 경우, 기기고장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 역사 내 질서를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사항 명문화 건은 지하철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www.ny1.com/ny1/content/index.jsp?stid=5&aid=51793)

7 모든 도로 시스템에 혼잡통행료 적용 제안 (영국)

영국 런던 중심부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됨에 따라 영국 교통부장관은 전국 모든 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성 추적 시스템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도로 종류와 주행거리에 따라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 또한 쉬워졌다. 런던 중심가의 혼잡통행료는 8파운드에서 최근 14파운드로 올랐으며, 적용대상지역도 곧 두 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화물차의 혼잡통행료는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며, 2007년경 도입될 예정이다.

(news.bbc.co.uk/2/hi/uk_news/4641089.stm)

8 운전 중 핸드프리 휴대폰 사용과 교통사고의 관계 분석 결과 발표 (호주: 퍼스)

최근 호주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핸드프리(hands free) 휴대폰 사용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미국 버지니아주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연구원들은 호주 퍼스(Perth) 시내 병원을 방문하여 744명의 교통사고 환자(운전자)와의 인터뷰 결과와 사고 직전 휴대폰 사용 여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조사했다. 연구 결과,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기던 휴대폰 핸드프리 장비 사용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운전 중 핸드프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준비중인 미국 내 입법 관계자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 담당자는 운전 중 대화 자체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단순히 휴대폰 사용방법만 바꾼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ews.com.com/Hands-free+devices+dont+aid+road+safety%2C+study+finds/2100-1039_3-5784048.html?tag=nefd.top)

9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협약하는 교통·환경개선 프로그램 추진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2005년 6월말부터 North York 시민회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혁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협약하는 ‘근무자 승용차 이용 억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시민회관 근무자들은 출퇴근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카풀, 자전거, 도보와 같은 통근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도시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토론토시가 현재 추진중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청정 대기환경 프로그램’, ‘매력적인 교통수단 만들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카풀 권장 웹 사이트 운영, 실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민건강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 지금까지 개인 승용차 통행에 의존했기 때문에 발생하던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orth York 시민회관 근무자들이 이 협약을 준수한다면, 매년 승용차 통근 통행으로 낭비되는 약 540,000달러의 재정적·환경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wx.toronto.ca/inter/it/newsrel.nsf)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④ 개발업자 주도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 추진 (워싱턴 D.C.: 페어팩스 카운티)

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당국은 교외의 한 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구상안을 최근 제시했다. 이 방안의 특징은 개발업자 책임 하에 자가용 이용억제 방안을 시행하는 데 있다. 개발업자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 후 발생하는 교통량 수준이 계획을 초과할 경우 일종의 벌금을 내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은 2,250채의 주택 및 콘도미니엄과 약 230,000m²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개발업자는 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 중 가정기반 교통량의 47%, 업무관련 교통량의 25%를 줄이는 조건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현재 개발업자는 주차면수 규제, 지하철 정기이용권 무상 제공 등 각종 자가용 이용억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카운티 당국은 2005년 가을 개발계획 재심의시 이러한 방안의 예상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개발 규모를 줄여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6/21/AR2005062101564.html?referrer=email&referrer=email)

④ 新도심 합동청사를 각종 촬영유치 특구로 제안 (사이타마縣)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은, 중앙정부가 특정지역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구조개혁특구의 제7차 제안에, 사이타마 新도심 합동청사를 촬영지로 활용하는 구상안을 포함했다. 이 제안의 목적은, 지역 지명도를 높이고 영상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있다. 사이타마縣의 「사이타마 신도심의 활기 창출 구상」은 합동청사 등 공공시설 내외에서 영화, 텔레비전, CM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공공 목적 이외의 촬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630c3b3005u30.html)

아시아 기업유치를 위한 특구특례조치 제안 (가와사키市)

일본 가와사키시(川崎市) 케이힌린가이부(京浜臨海部)에 아시아의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아시아 기업가 마을」 구상의 추진방안으로, 가와사키市는 외국인 경영자의 재류자격 인정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환경특구」에 이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특례조치로서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인 ‘아시아 기업가 마을추진기구’와 공동으로 내각관방(內閣官房) 구조개혁특구 추진실에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기업경영자가 재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00만 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번에 투자금액을 250만 엔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자나 국제업무 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창업준비 기간 중 경영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창업을 촉진하여, 「아시아 기업가 마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629c3b2904629.html)

대중교통시스템을 브랜드화해 재정 수입 증진 도모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최근 대중교통시스템을 상품 브랜드화해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시스템을 상징하는 로고를 새긴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최근 차량 외부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온라인 상점을 개설했다. 현재 온라인 상점에서 로고를 새긴 티셔츠, 가방, 우산, 컵 등 44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점차 상품 종류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유사하게 대중교통시스템 자체를 브랜드화해 높은 관련상품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뉴욕市는 연간 15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시카고와 워싱턴 D.C.는 연간 4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metro2jul02,1,3302081.story?coll=la-headlines-california)